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3년 10월 23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감귤로 빛나는 제주, 다함께 미래로” -3면 (23.10.15.)	감귤박람회	한국4-H 신문
○	제주시 제주4-H본부, 창립11주년 기념 한마음대회 열어-7면(23.10.15.)	제주농업기술센터	한국4-H 신문
○	제주시 애월읍4-H본부, 역량강화 교육 추진 -2면(23.10.15.)	제주농업기술센터	한국4-H 신문
○	우수상_한국4-H본부 회장상 제주 제주 고등학교4-H회-6면(23.10.15.)	제주농업기술센터	한국4-H 신문
○	“4-H이념이 담긴 4-H활동은 나의 삶이며 인생” -4면(23.10.1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국4-H 신문
○	최우수상_농촌진흥청 김용환 제주 서귀포시 4-H연합회 회장-6면(23.10.1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국4-H 신문
○	제주농업기술원 제주치유농업센터 개관 -8면(23.10.16.)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여성 신문
○	제주산 골드키위 ‘하트골드’ 첫 선-9면 (23.10.16.)	동부농업기술센터	한국영농 신문
○	한국생활개선회 노형지부 고추장 기탁-8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주간농업농촌소식-2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농업농촌정보-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비는 언제 오냐”...농가마다 한숨 ‘푹푹’ -6면	-	제주신문
○	호우피해 322ha... ‘무 농가’ 피해 컸다-6면	-	한라일보
○	道-뉴질랜드, 농업분야 기술 교류 확대 추진-6면	-	제주일보
○	올해 산 노지감귤 수확 본격-1면	-	제민일보

(한국4-H신문: 2023년 10월 15일)

○ “감굴로 빛나는 제주, 다함께 미래로” -3면

“감굴로 빛나는 제주, 다함께 미래로”
2023 제주감굴박람회,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펼쳐

올해로 11화째를 맞는 ‘2023 제주감굴박람회’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감굴로 빛나는 제주, 다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주최하고, 제주국제감굴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기)가 주관하는 제주감굴박람회는, 먼저 사전행사로 풋갈축제, 환감제, 감굴각테일 경연대회가 열리고, 공식행사로는 11월 30일에 개막식, 12월 4일에 폐막식을 펼친다.

특히 사전행사 가운데 풋갈축제가 지난 8월 15일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열려 제주도민과 관광객 1,3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풋갈축제는 사전예약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풋갈청 담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풋갈놀이터, 물풍선 게임, 튜브 던지기 게임, 꽃내기 예술가 힐링아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풋갈마켓에서는 친환경감굴연합회, 농촌융복합사업장들이 참여해 친환경 풋갈, 풋갈청, 풋갈 가공제품 등을 할인·판매했으며, 전연대상 등에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10.15.
한국4-H신문 3



지난 8월 22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3 제주국제감굴박람회 개최 D-100일 현판 제막식’ 모습.

한편 전시행사로는 감굴홍보관, 농기계 전시관, 전통자율주행 농기계전시관, 농자재전시관, 우수감굴전시관, 감굴산업관, 치유농업관, 3D 디지털전시관, 감굴아트전(감굴박물관) 등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굴아열대학회 심포지엄과 강연회 등의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감굴따기체험 등의 문화체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병기 제주국제감굴박람회조직위원장은 “올해 제주감굴박람회 개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주 감굴산업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정호주 기자 skyzoo74@4-h.or.kr

(한국4-H신문: 2023년 10월 15일)

○ 제주시 제주시4-H본부, 창립11주년 기념 한마음대회 열어-7면

제주시 제주시4-H본부, 창립11주년 기념 한마음대회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4-H본부(회장 이관홍)는 지난 9월 23일 제주어류양식수협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주시4-H본부 어우럼 더우럼 한마음대회’를 열었다.〈사진〉

제주시 제주시4-H본부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한마음대회에는 고봉철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창주 제주시4-H본부 회장, 이관홍 제주시 제주시4-H본부 회장 등 4-H지도자 6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축하했다.

주요 내용으로 강형일 순천대 환경교육과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으며, 양재현 서귀포시 안덕면4-H본부 회장의 ‘제주시4-H운동 발전사’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4-H과제 현장실습으로 ‘천연염색의 우수성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관홍 제주시 제주시4-H본부 회장은 “무엇보다 제주시4-H본부 제11주년을 기념하는 단행본을 발간하여 매우 의미가 깊다”며,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행동, 소통의 장을 생각하며’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감사함을

10.15.
이정우 제주특별자치도
한국4-H신문 7



(한국4-H신문: 2023년 10월 15일)

○ 제주시 애월읍4-H본부, 역량강화 교육 추진-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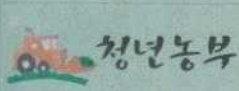
(한국4-H신문: 2023년 10월 15일)

○ 우수상_한국4-H본부 회장상 제주 제주고등학교4-H회-6면



(한국4-H신문: 2023년 10월 15일)

○ “4-H이념이 담긴 4-H활동은 나의 삶이며 인생” -4면



김 용 환
서귀포시4-H연합회 회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명절을 며칠 앞두고 한라산 남쪽 자배봉오름 자락에 위치한 제주그린팜 농장을 찾았다. 올해 서귀포시 남쪽의 예년과 달리 제2장마와 폭염 등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제주그린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환 서귀포시4-H연합회장(55세·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6554)을 찾았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감귤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김 회장은 학생시절부터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교에서 건축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후, 4-H활동을 하면서 농업의 현 상황이 고령화 문제로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농사를 짓

고 계시는 부모님의 고향도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농업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젊은 나부터 농업을 평생직업으로 삼고 아버지의 30년 노하우를 조합하면 6차산업으로 성공할 거라는 각오로 시작하게 되었다.

노지감귤은 공천조생과 일남1호극조생을 12,000㎡, 시설하우스에는 천혜안과 황금향 등을 16,000㎡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향농장과 감귤요육생산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 노동력을 본산에 연중 생산을 운영목표로 두고 생산량 전량을 온라인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제일 오프라인으로 직거래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골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영원한 단골은 없다는 것을 느낀 후 오직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게 되었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직거래의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 농장에서 생산하는 감귤 전량을 판매할 정도의 마케팅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김 회장은 “고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전향 판매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령화로 청년농업인이 없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서귀포시의 청년농업인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차

음 서귀포시4-H연합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던 시절 10명 내외였던 청년농업인4-H회원이 현재는 65명으로 늘었다. 김 회장은 “현재는 제가 4-H활동을 시작한 6-7년 전보다 많은 청년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 연합회 회원이 대폭 늘었다”며, “과제교육 및 행사 등 활발한 연합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농업인4-H회원과 함께 제주농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 감사, 2018년부터 2년 동안 서귀포시4-H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4-H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2년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4-H대상 봉사부문 수상, 한국4-H본부 회장 표창과 농촌진흥청장 표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서귀포시장 표창, 농협중앙회 제주지회본부장 표창 등 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회장은 “처음 농업에 뛰어들 당시 비슷한 도매 청년농업인들을 전혀 몰랐다”며, “4-H활동을 하며 많은 인연이 생기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지금은 몰도 없는 전우들이 생겨서 마냥 기쁘다”고 자랑한다.

김 회장은 우연히 아버지 손에 이끌려



김 회장은 고객과의 소통을 잘하고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전향 판매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방문한 도농업기술원에서 4-H연합회 역할 대화장, 농업기술원 선생님과 만나 4-H활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4-H단 단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4-H이념 실천과 4-H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자원과 집단역동, 지역사회 발전 참여, 농업을 평생

10.15.
한글4-H신문 4

(한국4-H신문: 2023년 10월 15일)

○ 최우수상_농촌진흥청장상 김용환 제주 서귀포시4-H연합회 회장-6면

최우수상_농촌진흥청장상

김용환 제주 서귀포시4-H연합회 회장

김용환 제주 서귀포시4-H연합회 회장은 2004년도 남주고4-H회 가입을 시작으로 19년동안 근면성실한 자세로 4-H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과제교육 추진 및 4-H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헌신하며 지역 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자립역량강화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촌고령화에도 지역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하여 감귤원 간별,



열매수기, 마늘수확 봉사활동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아동양육시설 봉사활동 등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4-H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10.15.
한글4-H신문 6

(농촌여성신문: 2023년 10월 16일)

○ 제주농업기술원 제주치유농업센터 개관-8면

제주농업기술원 제주치유농업센터 개관

제주지역 치유농업 체계적 지원하는 거점 역할 수행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지난 6일 제주치유농업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치유농업협의회와 유관기관, 치유농업사, 치유농장(마을) 운영자 등 총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소재한 치유농업센터는 2년간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499㎡(150평) 규모의 시설 건축공사를 마쳤다. 올해에는 야외 텃밭과 실습 체험장 등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편안함을 제공하는 2450㎡(741평)의 외부 시설을 조성했다.

치유농업센터는 교육실, 치유과 학실, 상담실, 치유텃밭, 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치유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치유농장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치유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적·물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고상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은 "제주도는 치유농업의 최적지로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치유농업센터 개관을 치유농업 확산과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차매안 심센터, 치유농장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경증 치매어르신들에게는 심신건강 회복과 인지 기능 향상, 비장애인에겐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정서 안정 등의 효과를 보여 치유농업프로그램의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치유농업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치유농장과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10.16.
| 김정자 기자 · lee
농촌여성신문 8

(한국영농신문: 2023년 10월 16일)

○ 제주산 골드키위 ‘하트골드’ 첫 선-9면

제주산 골드키위 ‘하트골드’ 첫 선

황색 뚜렷·당도 높고 크기 커

2021년 재배 시작 올해부터 출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익)는 제주산 골드키위 ‘하트골드’(품종명 감황)의 수확을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감황’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골드키위로 제주에서는 2021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현재 생산, 조천, 애월지역에서 재배 중이다. 모양이 약간 편평하지만 황색이 뚜렷하고 당도가 높으며 크기가 크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하트골드’는 지난 2021년 과원을 조성한 농가에서 수확한 뒤 선별해 출하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수확기 판별을 위한 검사 결과, 건물물 17.7%, 당도 8.4브릭스, 평균과중 148g으로 공동상표 ‘하트골드’의 수확 기준(건물물 17.0% 이상, 당도 8.0브릭스 이상 등)과 상품과 기준(과중 82g 이상)을 충족했다. 앞으로도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한 고품질 과실만 공동상표 ‘하트골드’로 유통·판매해 브랜드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성산일출봉농협 키위생산회 신태범 회장은 “신품종 도입 후 걱정이 많았지만 수확의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하트골드’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과실 생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협 농촌지도사는 “감황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소비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2024~2025 기술보급 불런딩 협력모델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 재배기술 정립 및 기상재해 예방, 수확기후 생산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성산지역의 고품질 ‘감황’ 생산을 위해 시기별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8~9월에는 수확기 관리, 적정 수확 기준, 저장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수확 전까지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지도하는 등 현장컨설팅을 추진했다.

2024~2025년에는 기술보급 불런딩 협력모델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감황’ 보급 확대와 안정생산기술 정착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10.16.
한국영농신문 9

(제민일보: 2023년 10월 23일)

○ 한국생활개선회 노형지부 고추장 기탁-8면



한국생활개선회 노형지부 고추장 기탁

한국생활개선회 제주시연합회 노형지부 (회장 안순영)는 최근 동주민센터를 방문 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고추장을 기탁했다.

10.23.
제민일보 8

(제주매일: 2023년 10월 23일)

○ 주간농업농촌소식-2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3-43호(2023. 10. 23.)

미래 지향적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기반 구축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 극조생 감귤 출하시 품질기준 준수: 당도 8브릭스, 착색 50% 이상
- 마무리 열매숙기: 10월 21일 기준 47mm미만 작은과일, 68mm초과 큰과일
- 부피 경감 및 착색 촉진을 위한 불용성칼슘제 살포: 착색 초기부터 10일 간격 1~2회
- 토양피복 감귤원: 10일 간격 품질검사 후 적정 물관리 실시

※ 2023년 감귤품질회 △노지 및 피복 조생 △친환경재배 출품 접수: 10. 23. ~ 10. 27.
(문의 064-762-3091)

■ 만감류: 총채벌레, 응애류 등 사전 예찰 후 발생 초기 방제

■ 당근: 검은잎마름병, 점무늬병 등 발생 초기 방제

■ 월동무: 나방류 예찰 후 방제, 맑은 날 새벽 기온 저하 시 이슬에 의한 노균병 발생 우려로 기상예 따라 예방약제 살포

■ 가을감자: 무름병, 역병, 나방류,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 양파

- 밀거름: 정식 직전 10a당 퇴비 2,000kg, 석회 80~120kg, 요소 17kg, 용성인비 40kg, 황산칼리 12kg
- 정식: 조생 10월 중~하순, 중생 10월 하순, 만생 11월 상~중순
- 10a 당 33,000주, 이랑폭 120cm, 줄사이 20~24cm, 포기사이 10cm
- 병해충 방제: 노균병, 총채벌레 등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0.23. 제주매일 2

(제주일보: 2023년 10월 23일)

○ 농업농촌정보-11면

■ 농업농촌정보

주요 농작물 관리 요령

▲양파

△밀거름=정식 직전 10a당 퇴비 2000kg, 석회 80~120kg, 요소 17kg, 용성인비 40kg, 황산칼리 12kg △정식=조생 10월 중~하순, 중생 10월 하순, 만생 11월 상~중순 - 10a 당 3만3000주, 이랑폭 120cm, 줄사이 20~24cm, 포기사이 10cm △병해충 방제=노균병, 총채벌레 등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10.23.
제주일보 11

(제주신문: 2023년 10월 23일)

○ “비는 언제 오나” ... 농가 마다 한숨 ‘폭폭’ -6면

“비는 언제 오나”...농가 마다 한숨 ‘폭폭’

지난해 이어 가을 가뭄 전망 속 모종 피해 예상
마늘 등 월동채소 타격...영농비 부담마저 커져

지난해 가을, 제주에 무강수일수가 3주 넘게 이어지며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던 것에 이어 올해도 가을 초기 현상을 보여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다.

22일 농협 등에 따르면 제주 서부지역 마늘 농가를 중심으로 올해 가을 가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23. 제주신문 6월 달 간 제대로된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생육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 제주지방기상청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서귀포시 대정읍에 내린 비는 5mm 수준으로 평년의 10%에 불과하다. 기상 예보를 살펴봐도 이번주 내내 대정지역을 비롯한 서부지역에 비 소식은 없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스프링클러와 양

수기까지 끌아와 물을 뿌리고 있지만 모종 생존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더욱이 물의 양에 따라 발아나 생육이 제각각이어서 비닐 파복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도내 주력 월동채소인 양파나 양배추 등의 모종이 이뤄지는 시기인 10월 가뭄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제주 농업 전반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행정 당국은 현재 토양 수분율을 볼 때 가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수가 적고 비 소식도 없는 상황이어서 가뭄이라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농가들의 영농비 부담마저 커졌다.

안 그래도 적은 강수량에 양수기 사용이 늘었는데 많은 농가들이 면세유 대신 비싼 휘발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재해대책 매뉴얼에 가뭄 시에 유류비 지원 조항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양병우 제주도의회 의원은 최근 서귀포시를 상대로 열린 제 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express.co.kr

(한라일보: 2023년 10월 23일)

○ 호우피해 322ha... ‘무 농가’ 피해 컸다-6면

호우피해 322ha... ‘무 농가’ 피해 컸다

서귀포 동부지역 피해 접수
400개 농가 지원 대상 확정
전체 피해 작물의 85% ‘무’

지난 9월 발생한 서귀포시 동부지역 집중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400개 농가 322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가 농가 피해 접수를 받아 현장 조사를 벌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비는 성산읍과 표선면에 집중되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9월 18~27일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았더니 403개 농가에서 858ha 규모의 피해 신청이 접수됐다.

서귀포시는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피해 현장을 찾아 정밀 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피해 복구 지원 대상 400개 농가 322ha를 확정했다. 이는 대파대 163.5ha, 농약대 158.5ha로 나뉜다. 작물

별 피해 현황은 무 276.4ha로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감자 23.3ha, 메밀 8.9ha, 당근 8ha 등 순이었다.

서귀포시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주요 생계 수단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재확인 등을 거쳐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확보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농가의 농업경영에 안정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제주일보: 2023년 10월 23일)

○ 道-뉴질랜드, 농업분야 기술 교류 확대 추진-6면

道-뉴질랜드, 농업분야 기술 교류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 뉴질랜드가 농업 분야 기술협력 등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0일 오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던 엘리자베스 베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만나 양 지역의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뉴질랜드의 키위 협동조합이자 세계 최대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인 제스프리 코리아 한국·제주도 대표와 뉴질랜드 무역진흥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베넷 대사는 “비슷한 기후와 자연 환경 덕분에 제주와 뉴질랜드가 경

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민국 제스프리 키위의 재배 면적 90% 이상이 제주에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감귤의 당도관리 재배기술은 키위 재배와 비슷한 유형으로, 제주농가가 키위를 대체작물로 삼기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제주도가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통해 농정의 틀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대체작물 전환을 위한 기술교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재병 기자

(제민일보: 2023년 10월 23일)

○ 올해산 노지감귤 수확 본격-1면



10.23.
제민일보 1

올해산 노지감귤 수확 본격

제주농촌 전역에서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는 가운데 22일 제주시 애월읍 한 과수원에서 2023년산 노지감귤 수확작업이 분주하다.

김용현 기자